

LG전선그룹, 'LS' 그룹으로 새로운 출발



LG전선그룹 구자홍 회장은 19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LS"를 사용

키로 하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룹의 새로운 사명으로 채택된 "LS"는 브랜드 전문업체가 제시한 "UB" 등 4~5개의 최종 후보안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사내 임직원 평가와 외부 전문가Group의 평가를 통해 그룹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LG전선, LG산전 및 LG니코동제련 3사는 매출의 50% 가량이 해외사업이고 이들 주력 3사의 향후 해외사업 전략에 따라 사명을 영문 이니셜 2자로 정하였으며, "LS(Leading Solution)"는 LG전선과 LG산전의 'Device'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CI의 화살표 모양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기업의 강한 의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무한 성장기업을 나타내며, Red와 Blue Color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LS" 그룹의 투명성과 건실함을, 그리고 심볼의 부드러운 Line은 고객을 향한 "LS"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브랜드는 3월 주주총회 승인 이후 그룹 사명으로 공식 사용되는데 그룹 주력 3개사가 각각 "LS전선, LS산전 및 LS니코동제련"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며, 나머지 LS그룹의 계열사도 개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LS브랜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그룹은 LS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와 A선포식, 그리고 선포식 이후 TV CF를 비롯 인쇄광고 등 다양한 홍보광고 활동을 추진하여 조기에 LS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홍보광고 활동 외에도 해외법인과 지사, Agents 등을 통해 LS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해외 전시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브랜드를 알리는데 주력하며,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LS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두산중, 중동 송수(送水)설비 사업 진출

- 2,800만 달러 쿠웨이트 슈아이바 송수설비 개보수공사
수주

- 담수플랜트 사업을 송배수 사업까지 영역 확장

두산중공업이 중동지역 송수(送水)설비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12일 쿠웨이트 산업청에서 발주한 슈아이바(Shuaibar) 송수설비 개보수 공사를 총2천8백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송수설비란 담수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을 산업단지 등 물 수요 지역에 공급하는 설비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슈아이바 프로젝트는 하루 송수량 600만톤의 쿠웨이트 최대 설비다.

두산중공업은 이 프로젝트를 설계에서부터 구매,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과정을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으로 수행해 오는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송수설비사업 수주를 계기로 담수 플랜트 기술과 연계해 취수, 송수, 정수설비 등 중동지역 송배수(Total Water Business, 送配水)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번 수주에 앞서 지난해 슈아이바 담수 플랜트 수명 연장 공사를 6천500만 달러에 수주한 바 있어 인력, 기자재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이윤영 부사장(담수BG장)은 "중동지역의 송배수 사업은 담수 플랜트 못지 않게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도 쿠웨이트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존스톤(Johnston), 일본 쿠우보타(Kuubota) 등 세계 선진 업체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세계 1위의 담수설비 공급능력과 함께 '물'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쿠웨이트 사비아, 리비아 벵가지, 오만 소하르, 카타르 라스라판 등 중동지역에서 발주된 담수 플랜트 프로젝트를 대부분 수주해 총 11억5천만 달러 상당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 회원사동정

한국종합에너지(주), KOSHA 18001 인증 획득 관련 자료



한국종합에너지(주) 인천발전소는 2005년 1월26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한국종합에너지(주) 인천발전소는 한성덕 발전소장 및 발전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장의 축사, 발전소장의 답사에 이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의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전임직원이 참여하여 공정 및 업무할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개선함은 물론 생산, 품질, 환경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 증진사항을 경영의 주요소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종합에너지(주) 인천발전소는 이번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한단계 향상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정착됨은 물론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대외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동서발전(주), 전 직원 마음 씀씀이 '최고' 직원들 순수 모금액 누계 1억원 돌파

한국동서발전의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웃사랑 펀드' 모금액 누계가 1억원을 돌파했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회봉사단 창단과 함께 모금을 시작한 '이웃사랑 펀드'는 시행 한 달만에 전 직원의 약 73%가 참여하는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후 꾸준하고 자발적인 직원들의 참여가 이어진 결과 올해 초 전 직원의 100%인 1922명이 참여하는 경이적인 성과와 함께 누계 모금액 1억 1천여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벤트성 모금 행사도 아닌 장기적인 재원

┃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란 ?

1. 인증제도의 소개 : 1997년 7월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BS8800)과 유럽인증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인증기준 (OHSAS18001)을 모태로 자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이다.
2. 인증제도의 평가분야 (총3개분야)

안전보건활동순준분야 (10개 항목)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18개 항목)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분야 (6개 항목)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1년 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사후 평가를 받음

구성 프로그램에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은 이렇게 직원들이 순수 모금한 '이웃사랑 펀드'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그랜트하여 마련한 사회공헌 활동재원을 현재 총7개 지회 84개팀으로 구성되어 전 직원이 활동중인「동서발전 사회봉사단」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 중 중점을 두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57명과 무의탁 노인 22명 등 어려운 이웃에게 자원봉사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동서발전이 운영중인 '이웃사랑 펀드'는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코자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1구좌당 1,000원씩 최대 20구좌까지 매월 급여공제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올해 1억 8천500만원의 직원들의 순수 모금액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처 및 신·재생에너지실 신설

원전 해외사업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병행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 원전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처와 신·재생에너지실을 각각 신설하기로 금일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원자력과 수력 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축적된 원전 운영 및 건설기술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기존의 해외사업실을 해외사업처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원자력사업과 병행,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실을 신설한 것이다.

해외사업처는 고유가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중국에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 수출, 루마니아의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와 함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처음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록 원자력과 수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원자력사업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고자 기존의 원자력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풍력발전 시범 건설사업 및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 참여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원전설비용량의 7% 수준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사회복지부에 성금전달

노사합동 지진해일피해지역 구호에 동참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2003년 9월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파워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회복지부를 방문하여 Chazali H. Situmorang 차관보에게 재난사고 복구지원금을 전달하였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파워 직원과 사회복지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달식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윤규한 전략사업실장과 부관우 노조 부위원장은 아체지역 지진해일참사에 대한 한국중부발전 임직원의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노사가 모금한 성금 2만달러를 전달했다.

Chazali H. Situmorang 사회복지부 차관보는 "이번 지진해일 복구활동에서 한국중부발전의 성금지원은 물품지원보다도 더욱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부관우 노조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복구활동을 펼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

만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 성금전달은 인도네시아 국영TV에서도 직접 촬영 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파워(주)는 1995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PLN)에서 분리된 설비용량 900만 kW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발전회사이다.

지금까지 한국중부발전은 2003년 11월에 인도네시아파워사 발전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50대를 기증하였고, 2004년 9월에는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3개월간의 직원 교환근무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기술교류 및 발전사업개발에 대한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 세계최초 복합화력발전소 매연저감 신기술 발표

- 국내 총 110여기 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시 최대 2,600억원의 비용절감 예상
- 현재 미, 일, EU 등 국내·외 6개국에 국제특허 출원 중, 외화획득도 기대

한국남부발전은 복합화력 可視매연(黃煙, Yellow Plume)저감 신기술 개발에 성공, 지난 1월 25일 부산복합화력발전소 현지에서 국내 복합화력 전문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부산복합 가시매연 저감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복합화력 매연 저감을 위한 HC-SNCR 기술 개발(일명 에탄올을 이용한 무촉매 환원 기술)"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복합화력 가시매연 저감 신기술 개발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2002년부터 전력산업 연구개발과제로 (주)코캣 (KOCAT)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이번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50여 차례의 실험과 모형 및 현장적용시험 등을 거쳐 2년 반 만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내 복합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 보전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발전소 기동초기 발생하는 매연인 이산화질소가 환경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지만 시각적 문제로 인해 민원을 유발해 왔다.

이번 매연저감 신기술은 기존의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법)과는 달리 고가 촉매반응기를 설치하지 않고 배열회수 보일러에 환원제(에탄올)만을 기화 분사,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질소와 반응시켜 매연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신기술은 부산복합화력 실증설비 시험에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63 ppm에서 10ppm미만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가시매연 제거에 성공하였으며, 10ppm미만의 농도는 매연이 분출되는 연돌(배기 출구)에서 측정된 수치로 대기 중 확산 시 매연측정이 안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이번 신기술을 부산복합화력 발전소 전호기(8개)에 확대 설치(25년 운영)할 경우 기존방식인 선택적 촉매환원법(SCR법) 채택시에 비해 약 200억원의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동일한 조건의 국내 총 110여기의 복합화력 발전소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시 최대 2,6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어 국내 환경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南電은 이번 신기술을 미국, 일본, EU 등 국내·외 6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복합화력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특허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이후에는 신기술의 해외 수출로 대규모 외화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육상 건조 선박 2호선도 성공 첫 선박보다 공기 2주 앞당겨 '효율성·경제성' 확인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無) 도크(Dock) 선박 건조 공법을 이용한 두 번째 선박의 진수(Load Out)가 1월 31일(월) 이 회사 해양공장에서 성공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육상에서 건조해 진수에 성공

한 선박과 같은 종류로, 러시아 노보ship(Novoship)사에서 수주한 10만5천톤급 원유운반선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해 첫 선박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6개월 반만에 진수에 들어갔으며, 3일이 소요되던 진수 공정도 2일로 줄여 일부에서 제기된 육상 건조 선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에도 사실상 중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선박은 첫 선박과 같은 방식인 △발라스트 탱크 급수·유틸리티 철거 등 사전작업에 이어 △특수장비로 선박을 들어올린 후 △스키드(Skid)를 이용해 안벽으로 선박을 옮기고 △이 선박을 바지(barge)선에 실어 바다로 끌고 가 바지선을 잠수시키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스키드를 이용해 선박을 바지선에 실는 과정까지 성공했으며, 바지선 회항과 선박의 안벽 안치는 오는 4일(금)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 진수가 진행된 이날 오전 한국프랜지의 김영주 회장과 선주사 측 임원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유관홍 사장과 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 진수 과정을 지켜봤으며, 현대중공업은 '삼폐인 브레이킹' 등 자축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진수한 선박은 오는 5월 마무리 건조를 마치고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며, 세 번째 육상 건조 선박의 진수는 3월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